‘AI도시 광주’ 500개 인공지능 창업기업 키운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2024년까지 556억 투입 육성
AI산업 융합집적단지 조성…시제품 제작·AI 토너먼트 개최도

광주 첨단 3지구에 인공지능(AI)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500개에 달하는 창업기업을 키워내기로 했다.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올해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의 하나로 오는 8월7일까지 ‘AI(시)제품 제작 지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인공지능 관련 예비창업자나 창업 7년 미만 국내 스타트업이라면 이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창업 7년 이상 기존 기업도 광주지역에 분사·지사 등을 설립해 사업화를 추진한다면 예비창업팀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총 55개 안팎의 과제를 선정, 총 41억2500만원을 지원한다.

평가에 따라 과제당 5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을 인공지능 시제품 제작에 사용할 수 있다.

최종평가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될 경우 다음해 3000만~1억원에 달하는 AI 고도화 비용을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단 측은 “이번 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 AI 관련 지원사업”이라며 “각종 기술·창업 교육과 국내외 전시회 참가, 마케팅 지원, 투자펀드 참여, 규제해소 컨설팅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 참가에도 우대된다”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올해 예산 100억6600만원을 포함, 오는 2024년까지 5년 동안 556억원을 들여 500개사에 달하는 AI 창업과 기업육성을 추진한다.

AI 창업 생태계 조성은 ▲예비창업 ▲스타트업 ▲기업성장 지원이 골자를 이룬다.

예비창업 지원에는 이번에 실시하는 시제품 제작 외에도 오는 10~11월 개최 예정된 AI 토너먼트(경진대회)가 포함된다. 1등(3개팀)을 수상하면 창업지원비 2000만원을 받는 등 선정된 38개 팀에 총 상금 2억3400만원이 주어진다. 경진대회 수상자는 사업단이 제공하는 컨설팅과 멘토링 등을 거치며 AI 창업가로 거듭나게 된다.

이외 170명을 대상으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30~50개 팀의 예비창업자와 스타트업 기업에는 최장 3년 동안 창업공간을 지원한다.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 가운데 평가를 통해 선정된 8개사에는 기업당 3000만~1억원 상당 사업비를 지원해 AI 제품 개발을 돕는다. AI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8년 동안에는 1000억원 규모 ‘AI 스타트업 펀드’를 조성 운영한다.

AI 창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나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차식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장은 “이번 사업이 국내의 다양한 AI 관련 제품의 제작과 사업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AI 관련 창업과 비즈니스가 활성화되고, 광주의 AI 융합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 정보통신업 사업체는 2016년 815개사(종사자 7831명), 2017년 862개사(〃 8050명), 2018년 878개사(〃 8290명) 등 점차 늘고 있다. 관련 산업 총 매출액은 지난 2018년 기준 2조5729억원으로 전년(2조3359억원) 보다 10.1%(2370억원) 증가했다. 광주시는 지난 5개월여 동안 21개 인공지능 기업을 유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1월 발표한 ‘2019 정보화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표본 사업체 11만8409개사 가운데 인공지능 기술(서비스)을 이용하는 업체는 0.08%인 104개사에 불과했다. 전년 조사에서는 광주 사업체 11만6046개사 가운데 단 4개 업체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다고 답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사업개요

▲사업 목표: 새 혁신동력 확보를 위한 AI 산업융합 생태계 조성
▲기간: 2020~2024년(5개년)
▲총 사업비: 3939억원(비R&D 3431억·R&D 508억)
▲올해 사업비: 868억원(건축 473억, 데이터센터 138억, 실증장비 147억, 창업 110억)
▲주요 내용:
-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세계 10위권 AI 컴퓨팅 파워 제공)
- 실증장비 총 77종(자동차 25, 에너지 26, 헬스케어 26) 구축 및 운영
- 창업지원(AI예비창업 지원·AI 스타트업 지원·AI 기업 성장 지원)
- 인력양성(대학 AI 인력양성·재직자 AI 교육)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 3지구 4만6200㎡ 부지에 조성될 예정인 ‘인공지능 중심산업 융합집적단지’ 조감도.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제공〉

조계헌 원장의 톡톡 창업이야기

‘한국판 뉴딜’ 소상공인 정책 살펴보기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축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2분기 성장률이 -3.3%로 외환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물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6월 말에 발표한 국제 경기전망에 의하면 2분기 G20의 성장률 평균은 -4.6%이기에 우리나라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을 바탕으로 나름 선방을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경제회복 속도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불투명한 관계로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선도를 위한 국가 대전환 프로젝트 차원에서 160조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한국판 뉴딜’이라는 새로운 대형 정책을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 및 역동성 촉진과 확산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뉴딜’과 경제기반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는 ‘그린 뉴딜’ 그리고 경제 주체의 회복력 강화와 고용 및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하는 ‘사회안전망 강화’라는 3개의 축과 28개의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또한 ‘한국판 뉴딜’ 추진 과제들 속에는 소상공인들과 관련된 정책들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요 사업은 크게 온라인 판로지원사업과 스마트화 사업이다.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은 소상공인 32만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획전, 쇼핑몰, 라이브커머스 입점 등 지원 및 구독경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연간 5000건 정도의 지원을 예정하고 있다. 참고로 라이브커머스는 웹이나 앱 등의 플랫폼을 통해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의미한다. 스마트화 사업은 5G,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기술을 소상공인 사업장에 적용한 스마트 상점 10만개, 스마트 공방 1만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스마트 상점과 스마트 공방에 적용할 스마트 기술들은 키오스크, 서빙로봇, QR코드 등 비대면 주문결제시스템의 도입 등을 포함한다. 10인 미만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도 기초단계 스마트 기술인 기기 자동화 등의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직은 각 사업별 세부사업 내용들이 자세하게 공개되진 않았지만 실제 사업에 돌입하는 시점에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더 다양한 지원사업이 진행되리라 예상해 본다.

금융권도 정부의 한국판 뉴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사업차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의 유예를 추가 연장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대출의 추가 지원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은행들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급망 금융상품 개발과 저비용 온라인 판매채널을 지원할 예정이며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맞춤형 뉴딜사업도 금융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니 지자체들의 소상공인 대상 지원사업의 추이도 종종 챙겨 볼 필요가 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앞으로 시행하게 될 한국판 뉴딜의 소상공인 대상 세부사업과 모집대상 및 지원내용들이 공개되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에 동참했으면 하는 바람이 든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사업들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 정보를 몰라서 신청을 못하거나 알고는 있지만 신청절차나 신청서류 작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처음 한 번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번거롭지만 막상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의외로 어렵지 않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도 자신 없다면 신청서류를 작성할 때 주변에 도움을 청해보길 권한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중기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교육생 모집

광주 30명·전남 15명 등
8월27일까지 260명 모집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하반기 교육생을 광주 30명·전남 15명 등 전국 260명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부터 점포경영체험 실습, 사업화 자금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하반기 교육생을 오는 8월27일까지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사관학교는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 유망 아이템 등을 보유한 예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창업 교육을 통해 준비된 상태에서의 창업을 지원한다.

참가자는 한 달 동안 창업교육을 받고 넉 달 동안 점포 경영을 체험할 수 있다. 광주지역에는 서구 상무지구에 체험점포 ‘꿈이룸’ 1~2호점이 있다. 체험 뒤에는 사업화 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을 5개월 동안 지원받는다.

사관학교는 지난해까지 9개 지역에서 운영됐으며 올해는 순천, 울산, 충북 등 3개 지역에도 추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국 17개 지역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전국 9개 지역에서 190여명 규모 교육생을 모집해 교육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는 신규로 사관학교가 설치되는 3개 지역을 포함 전국 12개 지역에서 260명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코로나19 여파로 하반기부터는 비대면·디지털에 기반한 창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점포경영체험 실습의 경우 하반기부터는 전 교육생을 대상으로 오프라인 점포경영체험과 병행해 온라인 점포운영 실습을 필수 교육 과정으로 신설한다. /백희준 기자 bhj@

전력거래소 무료 비대면 ‘신재생창업스쿨’

연말까지 5차례 진행

전력거래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연말까지 ‘신재생창업스쿨’ 교육과정을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다.

전력거래소는 1~5기에 걸쳐 신재생창업스쿨 교육을 KPX교육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1기 교육은 지난 27일부터 오는 8월7일까지 2주 동안 진행된다. 2기 교육 기간은 다음달 24일부터 9월4일까지이며, 신청은 8월10~21일 할 수 있다.

‘신재생창업스쿨’ 교육과정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매해 집합 교육과정으로 시행해왔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창업을 희망하는 이와 취업준비생, 지자체 공무원 등이 수강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 1기까지 총 3183명이 수강했다.

교육과정은 총 5과목 6차시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성 분석 ▲타당성조사의 이해와 금융 조달 ▲신재생에너지 사업절차 ▲전력시장의 이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 이해 ▲신재생에너지 발전 의무할당제(RPS) 설비확인 및 REC 발급이다.

전력거래소 측은 코로나19가 국내서 확산함에 따라 온라인 강좌 개설을 준비해왔다. 전력거래소 안팎에서 강사를 섭외해 스마트 보드형 온라인 교육콘텐츠를 제작했다.

위성철 KPX교육원장은 “비대면·디지털 교육환경 조성으로 감염병 예방과 함께 상시적 학습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창업에 도움이 되는 온라인 교육과정을 발굴하고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완하는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청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